

2024. 4. 2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손인호	02-2133-7470
장 애 인 편 의 증 진 팀 장	이계원	02-2133-746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3쪽

서울시, "장애인 화장실 찾기 쉽게"...2500곳 전수조사·세부정보 '스마트서울맵' 게시

- 연말까지 맞춤형 일자리 참여 장애인과 함께 도심 장애인 화장실 전수조사·추가발굴
- 동구발(사회적기업)·굿피플(NGO)과 '모두의 화장실'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
- 시, "도심 장애인 화장실을 더 쉽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

- 앞으로 서울 도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찾고 이용하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 2,500개를 전수 조사해 입구단차 등 세부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사업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들과 함께 연말까지 도심 내 공공 장애인 화장실 2,500여 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추가로 500개를 발굴해 지도상에 등재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후에는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기본적인 위치를 비롯해 접근로, 입구단차, 출입구 등의 세부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의 행정, 생활 정보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생활지도 서비스로, 스마트서울맵 내 ‘도시생활지도’→ 추천테마 중 ‘동행서울’ →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지도’ 정보를 차례로 누르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적기업 ‘동구밭’-사단법인 ‘굿피플’, 장애인 화장실 인식 개선 위해 ‘모두의 화장실’ 캠페인 진행>

□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을 쌓아놓거나 기물을 파손해 사용할 수 없는 실태를 바로잡고자 사회적기업 ‘동구밭’, 사단법인 굿피플과 함께 장애인 화장실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모두의 화장실’을 진행한다.

- 사회적기업 ‘동구밭’은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난 2월 일반 시민 대상으로 ‘모두의 화장실’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사단법인 ‘굿피플’은 국제구호개발NGO로, 동구밭 서포터즈 요원들과 함께 장애인 화장실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동구밭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장애인 화장실 관련 콘텐츠와 모두의 화장실 캠페인 내용은 동구밭 누리집(dongguba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캠페인 활동과 함께 동구밭에서는 4~5월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해 장애인 화장실 10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받이 등이 파손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화장실은 2,500개 화장실 전수 조사 시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위치 찾기가 어렵고 미개방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며,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 전수 조사와 관련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쳐 장애인들이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더 쉽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